낭만 고양이의 '팩폭'

PEOPLE EXHIBITION Philippe Geluck 보자르갤러리

한-벨 수교 125주년, 벨기에 대표 만화가 필립 그뤽 개인전

2026 / 03 / 04

조수지

벨기에의 '국민 캐릭터' 르깟(Le Cat)을 탄생시킨 거장 필립 그뤽(Philippe Geluck). 1983년 신문 연재 만화로 첫선을 보인 르깟은 회화, 조각, 공공미술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유럽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보자르갤러리에서 개인전 <Yours Truly, Le Cat>(3. 7~27)을 앞두고 있다. 익살스러운 장면으로 사회 관습을 꼬집어 온 작가의 궤적을 조망한다.



<Mondrian Pas Sec> 캔버스에 아크릴릭 114×162cm 2019 © Philippe Geluck

— 2025년 공간썬더 개인전 <르깟 북촌을 만나다>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았다. 이번 전시는 드로잉 원화는 물론 회화, 판화까지 아우른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르깟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 달라.

PG 지난 1년간 브뤼셀 르깟카툰뮤지엄 건립에 힘을 쏟는 한편, 스물다섯 번째 만화책을 출간했다. 동시에 화가이자 조각가로서의 작업을 병행하는 숨 가쁜 시간이었다. 예술은 나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설레게 하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게 한다. 신문

연재로도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만으로 완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대형 캔버스 회화를 시작했고 이를 조각으로 구현했다. 이 모든 형식을 연결해 주는 존재가 바로 르깟이다. 관객이 내 작업을 특정 장르로 한정하지 않고 물성과 스케일을 자유롭게 오가는 르깟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해 주길 바란다.

— 1983년 벨기에 일간지 『르수아르(Le Soir)』에서 시작된 르깟은 이제 벨기에를 넘어 유럽 문화의 아이콘이 됐다. '양복을 입은 뚱뚱한 고양이'라는 독특한 페르소나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나.
PG 시작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1980년 결혼 당시, 청첩장에 아내와 나를 고양이로 그려 넣었고,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 고양이를 더해 출산을 알렸다. 몇 년 뒤 신문사로부터 새로운 연재를 제안받자, 그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두 발로 선 채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맨, 말하는 고양이.... 둥근 안경을 쓴 내 모습에서 출발했지만, 곧 독립적인 성격을 갖추며 사회 전반을 논평하는 존재로 성장했다. 르깟은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는 수평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연대의 가치를 추구하며 권력을 비판한다.



<On En A Plein Le Dos> 브론즈 198×202×364cm © Studio FiftyFifty

50톤의 유머

— 르깟은 특유의 포커페이스로 촌철살인을 던진다. 장황한 서사를 덜어내고 3컷 만화의 간결한 구조를 취했다. 제한된 지면에서 철학과 유머를 동시에 다루는 전략처럼 보인다.
PG 바로 그 중립적인 표정 덕분에 독자는 르깟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수 있다. 연극학교에서 배운 '중립 마스크(Neutral Mask)' 훈련이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무 표정 없는 가면을 쓰고 몸짓만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스며들었다. 3컷의 구성은 '발단–전개–결말'이라는 희극 구조를 따른다. 나는 이 흐름을 좇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깨기도 한다. 두 번째 칸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 칸에 "이 공간은 광고를 위해 비워두었습니다"라고 쓰는 식이다. 관습을 비틀 때 유머는 더 또렷해진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내게 유머는 철학의 한 형식이다. 독서와 대화, 신문과 라디오에서 접한 정보가 축적되었다가 어느 순간 문장이 된다. 저널리스트, 배우, 코미디언, 방송인으로 활동한 이력도 도움이 됐다. 무대에 설 때면 관객의 반응이 늘 가감 없다고 느꼈다. 웃음이 터지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다. 그 긴장감이 르깟의 호흡을 만들었다. 르깟 역시 관객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는가. 마치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말이다. 나는 예술이 꼭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톤 체호프(Anton Chekhov)는 "예술작품은 두 종류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중요한 건 기쁨이든 슬픔이든 혼란이든 웃음이든 '감정의 발생'이다.

—르깟 조각전 <Le Chat Déambule>은 파리 샹젤리제, 모나코, 브뤼셀 공원 등 유럽 각지의 랜드마크를 순회했다. 육중한 물성과 경쾌한 해학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흥미롭다.
PG 작가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스스로 갱신해야 한다. 나는 연극과 방송처럼 팀 작업에서 시작해 점차 개인 작업으로 옮겨왔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본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싶었다. 광장에 세운 50톤 규모의 브론즈 조각도 마찬가지다. 왕이나 영웅을 기리는 데 사용되어 온 재료로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조각하는 일은 권위를 전복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 기자가 "톤

단위의 가벼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실제로 도시마다 세대와 언어를 불문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앞으로도 르깟에게 새로운 물성과 스케일을 불어넣는 형식 실험을 이어가려 한다.

— 2028년 브뤼셀에 개관할 예정인 르깟카툰뮤지엄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PG 20년 가까이 매달려 온 필생의 프로젝트다. 이곳은 르깟만을 위한 기념관이 아니다. 다른 풍자 만화가는 물론,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장자크 상페(Jean-Jacques Sempé), 시네(Siné), 피에르 크롤(Pierre Kroll) 같은 선배들에게 헌정하는 전시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양이가 어떻게 소비되고 변주되어 왔는지 시각 문화의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나는 관객이 전시장을 나설 때 조금이나마 행복한 기분을 안고 돌아가길 바란다. 누군가 "꼭 가봐야 할 전시"라고 말해준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르깟 앞에서 웃음 짓는 장면.... 그 순간이야말로 예술이 부리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마법 아닐까.



필립 그뤽 / 1954년 브뤼셀 출생. 벨기에 INSAS국립영화전문학교 졸업. 파리 마이욜미술관(2025), 갤러리에스타데스 리옹(2025), 공간썬더(2025) 등에서 개인전 개최. 브뤼셀에서 거주 및 활동. © Studio FiftyFifty